

“현장 목소리 시정 반영... ‘으뜸 나주’ 건설 앞장”

윤병태

나주시장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공모를 통해 민선 8기 슬로건을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로 정했다.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최고인 살아가고 싶은,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주라는 시민의 희망을 담은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으뜸 행정을 펼치겠다는 공직사회의 굳건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성과, 참여, 소신행정 추진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성과행정, 시민에 의한 참여행정, 시민을 향한 소신행정이야말로 나주시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행정 최우선의 가치라고 밝혔다. 간부공무원들과의 첫 상견례를 통해 성과중심의 행정을 통한 일 잘하는 시정을 주문했고 특히 시민의 요구에 대해 예산타령, 규정타령, 권한타령의 3대 타령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조하자면 공리를 통해 해법을 찾는 문제해결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여행정’이라고 밝히고 시장 후보시절의 방방곡곡 경청투어, 인수위에서 운영한 시민신문고 등의 소통 경험을 살려 시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시정 참여가 더 활성화 되도록 예산운용,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쓴다. 마지막은 나주 공동체의 희망찬 미래, 시민을 향한 ‘소신행정’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나주 공동체 행복과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는 것.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고 시민의 요구가 공익에 부합하고 타당하다면 규정과 절차를 바꿔서라도 처리하는 적극 행정, 문제 해결형 행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민을 향한 소신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평소 의지를 피력했다.

◇에너지신산업, 혁신도시 시즌2 구상

윤병태 시장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국가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에너지 국제대학도시’로 조성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업무협약으로 전남도, 한전,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리더 그룹 간 협력을 통해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밝혔다.

성과와 참여, 시민 향한 소신행정 ‘예산·규정·권한’ 3대 타령 극복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로 SRF발전소 대화 통해 해법 모색 명품 교육도시·맞춤형복지 지원



기업, 연구소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16개 공공기관 본사가 나주로 이전해왔다는 것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더할나위 없이 큰 축복이며 혁신도시가 광주와 전남 공동 발전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장 취임 이전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들과 만나 에너지신산업, 농업·농촌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윤병태 시장은 혁신도시 시즌2의 통상적 개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재의 혁신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고 규모는 갖춰졌는데 정주여건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법 모색

윤 시장은 최대현안 가운데 하나는 SRF발전소 가동 문제라고 밝히며 지난 달 30일 한국난방공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 결정이 내려

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좁아진 상황이며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부터라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소송, 가동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며 광주광역시와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한다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이고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처리원칙이 기본이라고 못 박았다.

◇명품 교육, 맞춤 복지

윤 시장은 지방도시의 어려움은 ‘교육’에 있다고 전제해 뒤 지방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나주는 외향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 여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예고를 비롯해 과학고, 외고, 미용고, 상고, 공고와 인문계 고교가 있고 특성화고교가 많은 것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교육자원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은 문화, ICT, 에너지, 금융, 농업 분야에 나름대로 훌륭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있는 곳이라면서 예전에는 ‘서울대를 보내야겠다’ 이랬지만 지금은 자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시대임을 잊어서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맞춤형 교육, 생활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공약으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는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거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나주의 인재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갔으면 한다”면서 “전남도에 인재육성재단이, 나주에는 교육진흥재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교육프로그램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 문제로 나주를 떠나는 것이 아닌 교육 때문에 나주를 찾는 명품 교육도시 만들는데 자신 있으며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 1인가구 증가, 농촌 어르신에 대한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어르신 복지 분야는 많이 확충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뒤 경로당을 방문해보니 입식 환경을 갖춘 경로당이 없고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릎관절로 힘들어한다면서 요즘 식당들도 입식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경로당도 입식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세밀한 부분을 지적했다.

◇공직생활 신조

윤 시장은 공직자는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하는 직업으로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직원들의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고 느꼈다면서 공직자는 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는 점,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며 공직자는 오직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고 ‘책상에 앉아 머리로 하는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행정’을 평소 공직생활 신조로 삼고 있다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 문제의 본질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힘과 지혜 필요

윤병태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통해 나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4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면서 “민선 8기 시정 목표와 방침의 실현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으므로 시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시민을 향한 소신과 참여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현장 소통 창구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운용, 인허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나주 공직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나주=이재순·조승권 기자

주요 공약

- ▲천년고도의 흔이 깃든 역사와 문화의 꽃을 피우는 융성하는 문화관광
- ▲농·축산업이 제대로 대접받고 농촌이 활기를 찾는 존중받는 농업농촌
-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미래 선도 활력경제 역점 도모
-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중심 혁신행정
- ▲최고의 교육 여건을 갖추고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명품교육 맞춤형복지 나주 실현

윤병태가 걸어온 길

- ▲광주상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기재부 공공정책과 과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분야 선임행정관 ▲기재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단장 ▲기재부 예산실 사무관·서기관·과장·국장 ▲전남도 정부부지사

- (왼쪽부터)
- ▶윤병태 시장이 남평향교 고유례에 참석했다.
- ▶나주시가 최근 미래첨단과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윤병태 시장이 동강면 주요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